

잊혀진 철학자를 위해서

- 박치우의 『사상과 현실』에 대한 서평

심의용*

1.

여기 비운의 철학자가 있다. 그는 외롭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그의 글을 묶은 『사상과 현실』(인하대학교출판부, 2010)을 소개하려 한다. 박치우(朴致祐, 1909-1949)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해방을 몸소 겪었던 사람이었다. 흔히 신남철, 박종홍 등과 함께 서양 철학을 수용한 제1세대의 학자로 소개된다.

1909년 함경북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1933년에 경성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1934년 경성제대 조수직을 그만두고 평양 숭실전문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숭실전문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된 다음 1938년 조선일보 기자가 되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자와 평론가 활동을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남로당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민주주의민족전선에도 관여했다. 1947년 초에 월북하였다가 1949년 남로당 탄압이 본격화된 이후 남로당이 대남 유격대를 투입했는데 박치우는 남한의 빨치산을 규합한 유격대로 활동했다. 박치우는 태백산 지구에서 전투를 벌이다 그해 11월 말경 국군과 경찰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 사살된다.

박종홍은 1960년대 이후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가담하여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국민윤리’ 교과와 토대를 만드는 데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박종홍은 역사에 기억되고 박치우와 신남철은 잊혀졌다. 이유가 없

* 숭실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지 않다. 월북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반공주의가 지배적인 시대에 용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학자는 박치우를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실천적인 철학자로 기억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의 빨치산 활동을 근거로 혁명적인 인민 민주주의자로 칭송하기도 한다. 어떤 학자는 「동아협동체론의 일성찰」(1940.7)이라는 글을 근거로 친일비평가로 평가한다.

그가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을 사고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은 사실이다. 분명 그는 빨치산 활동을 통해 그의 이념을 실천적으로 완수하려고 했다. 또한 일만지(日滿支) 삼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협동체 건설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일의 입장에서 사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에 대한 평가들 속에서 어떤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격동의 시대를 살다 간 한 사람에 대한 온당한 평가일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한 실천 철학을 그의 온 삶을 던져 헌신했고 몸소 실행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자, 빨치산 혁명가, 친일비평가라는 한 가지 낙인으로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모두가 박치우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인간은 모순된 존재이기도 하다. 나의 의문은 이런 것이다. 철학을 공부한 인텔리겐차가 왜 총을 들고 빨치산 투쟁에 뛰어들었을까. 그 의문은 그가 바라보는 철학과 인생에 대한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철학 개론이나 철학 입문을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내용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philosophy라는 말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지혜에 대한 사랑’ 혹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함께 희랍인들의 사고들을 얘기한다. 물론 틀린 설명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던 느낌은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이런 느낌의 정체를 확인해준 글이 박치우의 「아카데미 철학을 나오며」

(1936, 1월)의 글이다. 박치우는 ‘철학은 무엇이나’를 배웠던 것이 아니라 고 고백한다. 일견 철학을 공부한 사람의 치명적인 결함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는 고백과 함께 이런 한가한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문제는 전환된다.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철학은 오늘, 이 땅,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무엇이어야만 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철학의 고향이 어느 곳이었으며 또한 그것이 여지껏 얼마나 호사스러히 자라왔든지 간에” 중대한 문제는 “철학은 이 땅에서 어떤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이다. 모든 학문의 왕이라며 으스대던 서양 철학에 대해 이 얼마나 당당한 요구인가.

당연히 철학자이자 사상가란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강박, 현실이 그의 해결을 위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심장’을 통하여 힘있게 들을 수 있는 인간”일 뿐이다. 이 또한 당시 서양의 학문과 제국의 학문을 배우며 난해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읊어대던 ‘심장’이 없는 인텔리겐차를 향한 당당한 요구가 아니던가.

결국 철학은 추상적 중립성에 위치하며 보편적 진리만을 얘기하는 초연한 학문일 수는 없다. 박치우는 「철학의 당파성」이란 글에서 당당히 “철학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다”라고 선언한다. 플라톤의 철학은 노예제도에 의해 유지되었던 귀족적 데모크라시를 위해 복무했으며 중세 철학은 봉건 체제의 존속을 위해 기능했고 칸트 철학은 프랑스 대혁명의 독일적인 표현에 불과했다.

철학은 본래 포레모스(Πόλεμος: 싸움)이다. 박치우는 ‘학(學)’과 ‘사상’을 구별한다. ‘학’은 테오리아(theoria)의 산물이고 ‘사상’은 이즘(ism)이다. 테오리아는 관조, 사변 작용으로서 냉정하고 정태적인 개념이지만 이즘은 사상과 주장과 관련되어 정열적이고 동태적이다. 테오리아는 무엇이 참인가를 냉정히 파악하지만 이즘은 누구에게 좋은가를 물으며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테오리아는 엄밀성의 진리성(wahrheit)이 요구되지만 이즘은 엄숙한 성실성(ernstheit)을 요구한다. 테오리아는 객관성이지만 이즘은 주체성이다.

테오리아는 필연적으로 이즘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철학은 단순한 테오리아라기보다는 실로 이즘적인 테오리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즘으로서의 이데올로기는 테오리아로서의 그것보다 더 한층 노골적인 당파성을 띠게 되는 법이다.” 철학적 테오리아는 본래 자연에 관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등등 인간의 생존과 운명에 관한 테오리아이기 때문이다.

3.

철학이 포레모스, 즉 모순의 투쟁이듯이 사회 또한 모순 속의 사회이고 인간 또한 모순의 인간일 뿐이다. 박치우는 하이데거 등 실존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존을 ‘자각존재’로서의 인간을 주장한 것, 즉 인간을 논리적 오성적인 추상성으로부터 구출한 공적에 대해 감탄을 표한다.

하지만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실존이 너무나 비실천적인 인간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실존적 인간은 예술적 실천, 윤리적 실천, 종교적 실천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감성적, 사회적, 역사적인 실천, 생활적인 실천의 주체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박치우는 인간적인 철학을 말한다. 인간적인 철학은 관조적인 철학에 대하여 요구적인 철학(*fordernde philosophie*), 비판적인 철학에 대하여 호소적인 철학(*Appellierende Philosophie*)의 확립을 요구한다. 이론적 명증성이나 예민성 대신에 성실성을 가지고 근원적인 고뇌를 호소할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인간적인 철학이다.

인간적인 철학은 “인간을 물체로서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공간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적에 있어서, 평면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심원성에 있어서, 인과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운명성에 있어서 파악한다. 정적으로서가 아니라 동적으로, 학적으로가 아니라 생활적으로, 대상적으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나의 인생관>)

박치우는 비인간적인 철학의 예를 ‘과학적 인간학’과 ‘도학자적 인간학’으로 들고 있다. 과학적 인간학은 인간을 몰가치적 물체로서 인과율에 의해서만 고찰한다. 인간은 의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인간 심리의 수학자) 인간이 아니다. 도학자적 인간학은 물체가 아니라 영(靈)으로 고찰하여 무조건적인 선을 행할 것을 강요한다. 전통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있을 뿐 선악 등의 도덕적 근원을 살피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모순 그것으로 인간다운 인간은 진위(眞僞), 선악(善惡), 추악 등 모든 인간적 모순을 부동켜 안고 역사와 현실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싸움의 인간이다. 근원적인 악은 ‘함이 없는 것’이다. 박치우는 스스로 개도 성인도 아니라 “울고 웃고 노하고 싸울 줄 아는 나 자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다.(〈나의 인생관〉)

박치우는 진리성(wahrheit)와 성실성(ernstheit)의 구분한다. 로고스적인 파악은 진리성을 목표로 출발하는데 파토스적 파악은 성실성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물론 이 둘은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문제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인테리겐차들의 운명이다.

실존주의자들을 불안의 사상가들이라고 칭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다. 이들의 불안은 지성의 무능력에서 온 것으로 “지성의 ‘정확성’ 대신에 성심의 ‘진실성’, ‘성실성’을 유일의 의거로 삼지 아니치 못하게 되는 것이니, 종래의 주지주의를 버리고 일로 반주지주의적 방향으로 돌진하게 되는 소이가 여기 있는 것이다.”(〈불안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

결국 3가지의 길이 있다고 전망한다. 첫째는 ‘숙명의 길’로서 패배적인 봉사에 귀결된다. “모든 것을 불가피한 숙명의 소치에 돌려 적극적 타개를 단념하고 묵수할 뿐 아닐 감수함으로써 적전에 애원함을 최상의 연명책으로 생각하는 분자가 취하는 길이다.” 이는 현존하는 상태에 대한 노예적 봉사일 뿐이다.

둘째는 ‘신화의 길’로서 파시즘적 행동에 귀결된다. 파시즘에서 말하는 혈통(血), 민족 등의 지도 이념은 신화일 뿐이다. 파시즘은 자포자기적 인테리겐차의 비합리적 심정에 영합하여 목적 의도적 신비적 행동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복고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박치우는 ‘자각의 길’을 말한다. 이는 역사적 각성에 헌신한다. 실존주의자들도 본원적 자기에 대한 자각을 말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이어서 역사적 각성을 결여한다.

그가 말하는 ‘자각’은 어떤 것일까. 인간은 역사적 사회적 ‘정황’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자각은 인간 일반,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아니다. “종래로 자각이라고 하면 무슨 시공을 초월한 순수한 자아성의 발견이나 의미하듯이 생각하나 이것은 결코 참된 의미의 자각은 아닌 것이다.”(<현대 철학과 ‘인간’ 문제>)

자각은 참된 자아의 발견, 참된 자아가 곧 ‘정황’에 처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정황적 자아의 발견’, ‘자아의 정황성의 발견’, 즉 ‘정황에 있어서의 자아의 발견’만이 참된 의미의 자각인 것이다. 실존 철학은 이러한 역사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인간은 못 된다.

박치우가 숙명, 운명, 사명을 구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숙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필연성임에 반하여, 운명은 인간의 노력 여하로서는 뜯어 고칠 수도 있을 그러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동아협동체론의 일성찰>)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인가. “과거적인 필연성을 자기의 것으로서 부하(負荷)한 채로 미래적인 가능성을 현재에까지 끌어당기려는 강렬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때문에 사명의 시간성은 현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령 ‘현실적’인 명, 자각 따라서 가장 윤리적인 ‘명’이라고”(<동아협동체론의 일성찰>) 할 수 있다.

4.

박치우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증첩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했던 사람이었다. 물론 박치우가 일본의 동아협동체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친일 비평가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서구의 근대적 합리성에 대해, 특히 자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박치우는 이것에 대항하는 논리로 운명 공동체나 변증법적 전체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변증법적 전체주의가 실제로 지시하는 것은 사회와 역사를 망각한 개인이 아닌 사회와 역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을 가진 개인이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과시즘적 요소로서 피와 민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박치우로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에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진 동아협동체론을 긍정했다는 것은 식민지 지식인의 자기 분열일지도 모른다.

또한 해방 후에 이회영과 신채호가 사회주의 노선을 비판한 것은 레닌주의적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향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카우츠키는 레닌식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비난하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박치우는 분명 카우츠키를 잘 알았고 그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듯했지만 결국에는 박헌영의 레닌주의적 중앙집중제 노선과 급진적인 행동주의 전략과 함께 했다. 과연 그의 죽음은 남로당의 급진적인 좌경화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이며 정치적인 죽음이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의 죽음은 그가 가진 철학과 역사적 자각의 실천이었고 강도 높은 당파적 이즘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의 죽음에는 식민지 시기와 해방에 걸친 다양한 사상적 조류의 역사적 흐름이 맞물려 있다. 때문에 학문적 영역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조명을 통해 박치우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논할 수 있는 복잡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다시 외로운 어둠에서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